

PNU RISE 뉴스레터 10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중심에서 지역 교육을 책임지다

“ 부산대, 동남권 지방정부·앵커기업들과 함께 ” 동남권 혁신 협력체계 완성



부산대가 7월 27일 교내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 동남권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부산대와 동남권 주요 산업체 및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29개 기관 간 지·산·학 협력 「동남권 성장엔진 연계 지·산·학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남권 혁신 협력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부산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네이버클라우드·두산에너지·삼성중공업·LG전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 등 동남권 주요 앵커기업을 포함한 총 2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초광역 동남권 전략산업 발전에 맞춰,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방정부의 정책·지원 역량, 기업의 기술·연구 역량과 산업 수요, 부산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한 초광역 지·산·학 협력 플랫폼으로, 부산대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 주도 교육·연구 혁신, 공동연구 활성화, 실무형 고급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동남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부산대-삼성중공업, 조선산업 AX 혁신 산학연 협력 본격화 ‘AI·디지털테크 UIC Alliance Conference 2026’ 개최



삼성중공업 미래사업 본부는 동남권 조선해양 산업의 AI 전환 (AX)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7월 22일 'PNU - 삼성중공업 AI·디지털테크 UIC Alliance Conference 2026'을 개최했다. 부산대는 삼성중공업 등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역 대학·혁신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로, 기업 수요 발굴, 애로기술 해결, 기술 상용화,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참여 학술·문화행사 '공원, 도시의 구원투수' 개최



부산대 앵커사업단이 지원하는 학술림은 7월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민참여형 학술·문화행사 '공원, 도시의 구원투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국가정원·국립공원 등 3대 국가녹지브랜드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학생·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정원문화와 시민 참여, 근대 도시공원의 역사, 도시 유흥지에 형성되는 '제4의 숲'의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학술림은 앞으로도 공원·정원·숲의 공공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교육과 소통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 교육혁신포럼 <시대를 품고, 세계를 잇다 : AI 시대 교육대전환>

2026
EDUCATION
INNOVATION
FORUM

지역에서 세계로,
AI 시대 국립대학 혁신전략

세계로 열린 도시, 세계적 인재가 머물게 한다



특별발제

지역에서 세계로, AI 시대 국립대학 혁신전략

최재원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정부가 5극 3특 전략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이를 뒷받침할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학교가 AI(인공지능) 시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대학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지역·산업·정부를 잇는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다.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은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NN 2026 교육혁신포럼'에 참가, '지역에서 세계로, AI 시대 국립대학 혁신전략'을 주제로 특별발제에 나섰다. 최 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고등교육과 산업 질서, 기술혁신의 판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며,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NN 주최로 마련된 이날 교육혁신포럼에는 교육부·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대학 총장, 교육·연구기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 교육혁신과 지역대학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AI 시대 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해 동남권 산업 재편과 청년 정주, 지역 혁신을 연결하는 성장엔진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발제와 교육협력 라운드테이블 참여를 통해 동남권 초광역 협력을 이끄는 중심 대학으로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6 PHM KOREA X 미래모빌리티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 미래모빌리티 UIC는 지난 26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6 PHM KOREA X 미래모빌리티 AI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1명, 대학원생 7명, 학부생 15명 등 총 23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선·해양 분야의 PHM 기술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세션 및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관련 기술의 최신 흐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래모빌리티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회와 협업하여 신산업 핵심기술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미래 산업 맞춤형 공동 교육체계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참석을 지원함으로써 전공 기반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실무·연구 역량을 함께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대 앵커사업단은 앞으로도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학생들의 현장 이해도와 융합 역량을 높이고 지역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 힘을 계획이다.

“

부산 유원지 명품화 아이디어 발굴

”

부산지역 대학생 17개 팀 참여...황령산·동백유원지 활성화 방안 제안



부산대학교 앵커사업단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2026 지산학연계 유원지 명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지역 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황령산유원지와 동백유원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장소적 가치를 살린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2026년 2월 공고를 시작으로 현장설명회, 사전 질의, 작품 접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부산지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조경 분야 8개 팀과 건축 분야 9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지난 7월 8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30명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부산대학교·부산광역시 관계자 등 총 58명이 참석했으며, 조경 분야 8개 팀과 건축 분야 8개 팀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참가 학생들은 황령산유원지와 동백유원지의 자연환경과 도시 경관, 이용자 접근성, 공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경과 건축 분야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평가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역 연계성 등이 우수한 총 6개 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조경 분야 대상은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김하늘·양예준 학생이 수상했으며, 건축 분야 대상은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이지은 학생과 생명과학과 최유미 학생이 차지했다. 건축 분야 우수상에는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이해원·강성민 학생이, 장려상에는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이원석·김서연·우예진·조용준 학생이 선정됐다. 조경 분야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학생팀이 수상했다. 공모전 출품작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도시철도 시청역 전시통로에 전시돼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